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8월 14일 함께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8월 12일 통도사에서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후보자들 전국 누비며 '종책 경쟁'

종정 성파 스님 예방 시작으로
2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돌입
사부대중 만나 '종단 발전' 다짐

특별취재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해 가르침을 청한 데 이어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을 찾아 종책을 설명하고 종단 발전에 진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후보 등록 직후인 8월 12일 통도사를 찾아 성파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스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해 온 내용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마무리를 잘하겠다는 원력을 내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에 성파 스님은 "수고하시겠다. 잘했다"며 "열심히 성취하도록 하라"고 진우 스님의 원력을 응원했다.

성파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방과 갈등에 대해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가물 때도 있는 법이다. 비방은 거품처럼 올라오다 금방 꺼지는 것이니 괜찮다.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도 8월 14일 통도사를 찾아 성파 스님을 예방했다. 두 스님은 함께 예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종책이나 종단이 지향하는 바에 공통점이 많아 뜻을 모았다"며 "아울러 요즘 말하는 '단일화' 과정을 앞으로 잘 조율해 종단 발전과 미래 희망에 기여하고 선거를 원만하게 치러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파 스님은 선거의 부작용을 경계하며 종단의 화합을 최우선 덕목으로 강조했다. 스님은 "선거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로 인해 폐단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안팎으로 국태민안이 염려되는 어려운 시국에 불교계마저 화합하지 못하면 종단과 불교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쟁은 하되 과열되어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경책했다.

이어 두 스님은 용인 반야선원에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예방했다. 자광 스님은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종단을 이끌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라고 격려했다. 또 서울 법룡사에서 열린 전국비구니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각각 비구니 스님 관련 종책 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8월 15일 진안 금당사를 찾아 전 총무원장을 지낸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운영 경험과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다. 이어 전주 서고사에서는 화평 스님을, 정읍 내장사에서는 대우 스님을 만나 종단과 사찰 간 소통과 협력, 지역불교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개운사를 찾아 승가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출가 천명 프로젝트'를 비롯해 승가교육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정념 스님은 이후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 종도들과 만나며 자신의 종책과 종단 운영 구상을 설명하는 등 표밭 다지기를 이어갔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8월 14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 설법전에 마련된 일하당 무공 대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전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주지 선광 스님, 문도 스님들을 위로했다.

이후 전국 교구본사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등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종책과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8월 20일에는 전국비구니회와 간담회를 갖고 종단 현안과 비구니 승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세 후보는 선거일 하루 전인 9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불교광장 "의혹 아닌 정책으로, 갈등 아닌 화합으로"

8월 19일, 입장문 발표
"비전·종책으로 경쟁해야"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3명 모두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 이상의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종단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광장은 8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우·경우·정념 스님 등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른 적격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 내려진 종단 최고 선거관리기구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판단"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종단의 법통과 권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불교광장은 "이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 소모적인 네거티브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미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종단의 공적 제도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대중의 화합을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정책으로, 갈등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후보자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종단 발전을 위한 비전과 종책으로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전국비구니회 '참종권 확대' 종책 제안

후보자 초청 간담회서 제안서 전달
"교역직 참여 확대…선학원 해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강화와 종단 운영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종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종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차기 집행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종책제안서에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보유한 모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종단 운영에 반영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행·교육·포교·복지·행정 등에서 역량을 키워온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종단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종책으로는 △총무원 행정기구 참여 확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석수 확대 △종단 차원의 복지체계 구축 △선학원과의 관계 회복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종책 실현 방안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부 신설보다는 현 총무원 주요 보직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 선거인단 20% 이상을 비구니로 구성하고, 종단 및 대외협력 위원회에 비구니 참여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앙종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선 "비구니 직능 선출위원이 비구니 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승려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종단에서 승가공동체(실버타운)를 설립하고,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선학원과의 관계 회복도 요청했다. 비구니회는 '법인법'에 따라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선거권 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후보자 초청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회장 광용 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회 운영위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8월 14일에는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두 후보자는 각각 비구니 스님 관련 종책 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경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 종단 운영의 당당한 한 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며 "오늘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종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출가자 감소 시대에 종단 발전과 전법을 위해서는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종단 운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비구니회와 협의하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8월 14일 개최한 경우 · 정념 스님 초청 간담회(사진 왼쪽)와 8월 20일 진행한 진우 스님 초청 간담회 모습.

8월 20일에는 기호 3번 진우 스님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소신을 늘 갖고 있었다"고 공감을 표하며 "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종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취지를 잘 설명해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용 스님은 "후보자 스님들이 관련 공약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38대 집행부가 수행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 박지운 기자

3보에 귀의합니다.
3공(공의, 공감, 공심)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호 3번 진우입니다.



佛敎中興, '시작된 변화, 도약의 완성'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호 3
진우스님